

대통령 하야·국제회의 취소...혼돈의 중남미

볼리비아 모랄레스 퇴진
칠레·베네수엘라·에콰도르
불평등 심화 불만 시위 격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가 10일(현지시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 발표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정치 불안이 심상치 않다. 좌우 대립 속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라틴아메리카가 혼돈에 휩싸였다.

볼리비아에서는 지난달 20일 대선 개표 조작 논란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로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집권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결국 하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모랄레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최소한 3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 정치가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14년의 통치가 막을 내린 것이다.

중남미의 온건한 사회주의 물결을 의미하는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확산하면서 등장했던 모랄레스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의 강력한 아이콘이 몰라나게 된 것이라고 로이 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중남미에서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뿐만이 아니다. 칠레 역시 지난달 18일 격화된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사망 23명에 부상자도 2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칠레 적십자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칠레는 사실상 행정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급기야 이달과 다음 달 개최기로 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등 국제 행사를 취소하면서 국제 신인도가 하락했다.

표면적으로는 자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소요 사태의 도화선이 됐지만, 악화하는 빈부 격차로 언제든 폭발 가능성이 내재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이끄는 칠레는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며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중남미 최대 부국으로 통할 정도로 의견상으로는 견고한 모양새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등 국제 행사를 취소하면서 국제 신인도가 하락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지난해 대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불복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

난 1월부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시위대가 정권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 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알레한드로 히야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이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국이 주재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외교 문제까지 비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세계 최대 석유 자원 부국이지만 포퓰리즘과 정권 부패 문제가 심화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지난달 초 정부가 유류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석유 가격이 오르자 빈곤층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인 키토 대신과 아킬로 정부 기능까지 일시 이전할 만큼 혼란이 벌어졌으며,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유류 보조금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면서 열흘 넘게 이어진 시위가 가까스로 진정됐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후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브라질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우파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맞서 룰라 전 대통령이 좌파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6〉 진종

진종(眞宗, 968-1022)은 북송의 3대 황제로 문치주의를 확립하고 과거제도를 정착시켰다. 요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맺어 약 40년간 화평을 이루었다.

968년 12월 태종의 3남으로 태어났다. 태종의 장자도 아니고 모친도 황후가 아닌 까닭에 황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망형이 폐위되고 둘째 형이 돌연 사망하는 바람에 황태자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모가 준수했다. 재상 이항은 그의 총명함에 우려를 표했다. 지나치게 총명해 과감성을 잃어 대국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친을 어려워해 매사 조심했다. 이러한 성품은 즉위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 황제의 권한을 과감히 행사하지 못하게 만

재정지출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요와의 강화조약은 화친파에 의해 매도되었다. 전연의 맹약은 성하(城下)의 맹약으로 국가적 수치에 해당한다고 재상 구준을 몰아부쳤다. 이는 최종결정권자인 황제의 명에 훼손시켰다. 왕후는 황제의 권위를 회복할 계책으로 봉선(封禪)을 건의하였다. 봉선은 산동성의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 진시황, 전한의 한무제 등이 봉선을 행한 바 있다. 문제는 봉선의 명분이 없었다. 재상 이항은 그의 총명함에 우려를 표했다. 지나치게 총명해 과감성을 잃어 대국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친을 어려워해 매사 조심했다. 이러한 성품은 즉위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 황제의 권한을 과감히 행사하지 못하게 만

북송의 3대 황제...문치주의 확립

들었다. 그의 즉위에는 구준의 역할이 컸다. 태종이 "짐의 아들 중 누가 신기(神機)에 부합하느냐"고 하문하자 구준은 "폐하께서는 천하인의 바람을 좇아야 할 것입니다"고 답했다. 이런 연고로 성실한 셋째 아들을 황태자로 삼았다.

즉위 후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요와의 국경 분쟁이었다. 1004년 성종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참지정사 왕용약은 금릉으로, 진요수는 성도로 파견할 것을 청하는 등 화의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재상 구준은 이에 단호히 반대했다. 황제가 친정하면 적은 마땅히 자진 퇴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종은 황후를 건너 전연에서 적과 대치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전연의 맹약이 체결되었다. 송은 요에게 비단 20만 필, 은 10만냥을 보내고 송은 형, 요는 동생의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강화 조약 덕에 양국은 약 40년에 걸쳐 안정적 관계를 유지했다.

문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과거제도는 진종 때에 정착되었다. 태조 재위기간 350명의 급제자가 배출되었고 태종 때는 5816명이 배출되었다. 진종 재위 3년째인 1000년 무려 1538명이 과거에 급제했다. 중국 과거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러나 문관 중심의 국경운영으로 홀리 문약화(文弱)가 심해졌다. 주변국과의 화평을 위한 과도한

태산에서 봉선 의식을 치렀다. 경비만 무려 820만 명이 지출된 행사였다. 다음 해 연호를 대종상부(1008-1016)로 바꾸었다.

진종은 부친 태종과는 달리 매사를 중신들과 상의하는 협치를 추구했다. 조정 신료들이 반대하면 자신의 뜻을 접고 조정의 중의를 따랐다. 그의 재위 시 범종, 한기, 부필 등 개성있는 명재상들이 배출된 것은 진종의 화합형 리더십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방식은 북송의 조종지법(祖宗之法)으로 정착되었다. 뒤를 이은 인종때 "모든 일은 조정신료들과 상의한다"는 원칙으로 굳어졌다.

유아와의 러브 스토리는 너무 유명하다. 가주자사를 역임한 유평의 딸로 결혼한 몸임에도 진종과 정을 통했다. 진종이 즉위한 후 그녀는 후궁으로 발탁되었다. 곽활후가 병사하자 그녀를 황후에 책봉하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시녀 이씨를 진종과 동침케 해 아들을 낳으니 후일 인종이 되는 조정이다. 이씨가 낳은 아들을 빼앗고 자신이 난 것처럼 속였다. 진종은 이를 기회로 그녀를 황후로 책봉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지만 조정을 정성껏 양육할 수 있는 유망후를 1033년 죽을 때까지 수렴정정을 하였다.

블룸버그 파괴력 아직은 미풍
美 대선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 6위

미국의 역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뒤늦게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합류'하면서 경선판이 출렁이고 있지만, 여론 조사상으로는 아직 '미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에 뛰어올 경우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다른 대선 주자들도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 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턴트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민주당 코커스 내지 프라이머리 참석 의사를 밝힌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상 양자 대결 오차범위 ±3%포인트,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 오차범위 ±2%)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4%의 지지율로 민주당 대선후보 중 6위에 자리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1%로 1위를 차지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20%),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18%),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8%)이 뒤를 이었다. 높은 대중적 인지도에도 기존 1~5위 경선 구도에 균열을 내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연합뉴스

홍콩 경찰 또 실탄 발사...희생자 추모 시위자 1명 위독

10월 이어 세번째 시위자 피격
경찰 "모든 무력 사용해도 좋아"
중 4중전회 이후 진압 강경해져

11일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2명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쓰러졌으며, 1명은 위독한 상태이다. 홍콩 시위자가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벌써 세 번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홍콩 사이완호 지역에서 '시위 첫 희생자' 홍콩과기대 2학년생 차우츨록 씨를 추모하는 시위가 열렸다.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시위 영상을 보면 이날 시위 현장에서 한 교통경찰이 도로 위에서 시위자를 검거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그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다. 이후 총에 맞은 시위자는 도로 위에 쓰러졌으며, 이 경찰이 쓰러진 시위자 위에서 그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이 경찰은 다가오는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이완호에서 시위 중 한 참가자(위)가 경찰이 쏜 실탄에 가슴 부분을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경찰과 가만 쓴 시위대의 대치 현상이 페이스북에 생중계된 가운데 최소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다쳤으며 출퇴근 시간 시위로 혼란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다른 시위자를 향해 실탄 2발을 더 발사해 모두 3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다른 시위자도 총에 맞고 쓰러져 경찰에 제압당했다.

실탄에 맞은 시위자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1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생명이 위중한 시위자는 21살 남성으로, 오른쪽 신장과 간 부근에 총알이 박힌 상태이다. 총상으로 문정맥이 파열돼 병원은 긴급 수술을 했으나, 총알을 적출하지는 못했다. 수술 때 피격자의 심장이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받기도 했다. 다른 1명의 피격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피격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쳤으며, 경찰들은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를 쏘며 해산에 나섰다.

시위대가 추모하는 차우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정관오 지역 시위 현장 인근에서 최루탄을 피하려고 하다가 주차장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후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8일 오전 숨졌다.

홍콩 시위대는 이날 오전 차우 씨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지하철 운행과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전개했으며, 총파업, 동맹휴학, 철시 등 '3파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Him e Bnong Solar Energy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